

시험 선택제(Test-Optional) 또는 비필수(Test-Free) 정책에 대한 논란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데이비드 리언하트의 기사 "The Misguided War on the SAT"에 대응하여, 고위험 표준화 시험의 축소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FairTest 는 "Why College Admissions Should Remain Test Optional/Test Free"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학 입학에서 표준화 시험에 중점을 두는 관행을 비판하며, 시험 선택제 또는 시험 비필수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SAT 와 ACT 를 지지하는 주장을, 특히 이 시험들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대안적인 입학 방식을 제시합니다.

SAT 와 ACT 는 원래 재능을 고등교육으로 선별하고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되어, 능력주의 시스템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FairTest 는 이러한 시험이 "능력(merit)"이나 대학 준비 상태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AT 는 주로 수행 속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개념, 속도 능력, 그리고 단순한 독해력을 평가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객관식 형식 내에서 작동한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 시험들은 가족 소득, 부모의 학력, 값비싼 시험 준비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타고난 능력이나 잠재력을 측정하기보다는 특권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FairTest 는 또한 표준화 시험의 예측 타당성에 대해 비판합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성적(GPA)이 대학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를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GPA 는 대학 신입생 성적 및 장기적인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SAT 나 ACT 점수보다 더 일관된 지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GPA, 특히 대학 준비 과정에서의 성적이 학생 잠재력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소득 및 부모의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예측 모델에 포함할 경우, 표준화 시험의 타당성은 크게 감소하며, 이는 시험이 지닌 편향성과 유용성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표준화 시험 지지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형평성에 대한 주장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지지자들은 SAT 와 ACT 가 숨은 인재, 즉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FairTest 는 이러한 시험이 오히려 소외된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반박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표준화 시험은 값비싼 과외 및 시험 준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보고서는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러한 자원을 통해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는 연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시험 선택제 정책이 소외된 집단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거의 100 개에 달하는 사립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험 선택제 정책은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등록 비율을 10-12% 증가시키고, Pell Grant 수혜자의 비율을 3-4% 증가시키며, 여성 학생의 비율을 6-8% 증가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저소득 가정 및 대학 1 세대(가족 중 첫 대학 지원자) 학생들의 지원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는 시험 선택제 학생들이 펠그랜트 수혜자, 대학 1 세대 학생, 혹은 유색인종 학생일 가능성이 두 배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록 신입생 GPA 에서 처음에는 차이가

났지만, 이러한 학생들은 졸업률 및 학업 성과 면에서 시험 점수를 제출한 동료들과 유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FairTest 는 표준화 시험의 객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문제 삼습니다. 숫자로 된 점수는 겉보기에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시험 응시자의 다양한 문화적 및 교육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 배경 혹은 가정 교육상 이미 SAT/ ACT 의 구조나 내용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자원이 부족한 학교나 비전통적인 교육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벽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보고서는 표준화 시험 요건의 폐지가 학문적 기준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시험 선택제나 시험 비필수 정책을 채택한 많은 대학들은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의 지원 증가를 경험했으며, 학문적 질은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일 대학교는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 지원자들이 학업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며 캠퍼스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험 선택제 정책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률은 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FairTest 는 또한 표준화 시험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분석합니다. 칼리지보드와 ACT, Inc.와 같은 기관들은 이 시험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시험 선택제 정책이 이러한 기관들의 재정 모델에 위협이 되자, 이들은 표준화 시험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공공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FairTest 는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 매체가 표준화 시험이 초래하는 불평등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이러한 추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시험 선택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종종 학점 인플레이션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관성 부족과 같은 잠재적 단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FairTest 는 이러한 우려보다 전체론적 입학 방식의 이점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성적, 교외 활동, 에세이, 추천서의 조합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함으로써 대학들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표준화 시험과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에서 능력을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험 점수와 같은 좁은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입학 과정은 회복력, 창의성, 리더십과 같은 특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개인의 경험을 통해 길러지며, 표준화 시험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큰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들은 캠퍼스 커뮤니티에 독특한 관점과 강점을 제공합니다.

FairTest 는 시험 선택제와 시험 비필수 입학 정책으로의 전환이 고등교육에서 더 큰 형평성과 포용성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표준화 시험이 일부 예측적 가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와 편향성으로 인해 학생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학들은 다양한 인구를 더 잘 수용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